

라이프 여행~재미 라이프 여행~
스스그 스스그

눈오는 날엔 노천탕이 있는 온천여행 떠나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겨울철 여행지를 꼽으라면 온천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오랜 사랑을 받아왔다. 요즘에는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스키를 탄 후에 뜨거운 온천물에 몸을 녹이며 여독을 풀 수 있는 패키지여행상품이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시설과 노천탕, 건강을 위한 각종 기능성 탕까지 갖춘 대형 온천들이 생겨나면서 남녀노소할 것 없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중 온천하는 재미는 뭐니뭐니 해도 노천탕이다. 하늘을 바라보며, 흠날리는 눈발을 맞으며 온천욕을 하는 맛은 다른 무엇에 비길 데 없다.

취재 / 박지연 기자

건강하고 즐거운 온천을 즐기려면 몇 가지 요령이 있다. 온천욕을 할 때는 수분 보충을 위해 미지근한 물을 마신 후 입욕하는 것이 좋다. 탕에 들어가면 우선 몸을 깨끗이 씻은 후 저온탕부터 시작해 고온탕으로 이동한다. 비누는 적게 쓰는 것이 좋다. 때를 미는 것은 동네 목욕탕에서 하고, 온천에서는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온천욕을 즐기는 것이 좋다. 배가 부르거나 공복일 때, 음주 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탕에 너무 오래 있거나 한꺼번에 여러 번 하는 것은 피부나 건강에 좋지 않다. 온탕의 경우는 10~15분 정도로 2~3회 반복하는 것이 적당하다. 열탕은 10분 미만으로 하되, 2회 이상 전신욕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입욕 후에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다음은 수질도 좋고 온가족이 가볼 만한 유명 노천탕들에 대한 소개이다.

▶온양온천

1990년 7월 개장한 충남 아산시의 온양관광호텔(041-540-1000) 노천탕은 '국내 최초의 노천탕'이라는 것이 호텔측의 자랑. 높이 10m의 인공폭포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를 비롯하여 조경이 잘 된 주변 환경 속에서 온천수증기로 몸을 감싸며 세속의 근심과 시름을 잊고 온천욕에 빠져들 수 있다. 총 113개의 객실을 보유한 온양관광호텔 내에는 신정비, 영괴대 등 온천과 관련된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다. 주변 여행 명소로는 외암민속마을, 맹사성고택, 현충사, 천안 광덕사, 예산 추사고택 등. 아산시의 숙박시설은 온양그랜드호텔(041-543-9711), 온양프라자호텔(041-544-1611), 파라다이스도고호텔(041-542-6031) 등이 있다.

▶수안보온천

충북 충주시 상모면 수안보온천지구의 온천수는 지하 250~700m에서 용출되는 수온 53℃의 약알칼리성으로 피부미용과 노화방지에 효과가 좋다고 한다. 수안보에는 숙박을 겸한 온천 시설이 많은데 수안보파크호텔(043-846-2331~6)이 노천탕을 보유하고 있다.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원형의 노천탕에서는 눈 덮인 월악산 영봉의 산줄기를 감상하면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수안보에서 가장 높은



▶수안보 온천지 주변전경



자리에 위치, 수안보마을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 호텔은 2002년 7월 리모델링을 끝낸 110여개의 객실과 온천탕, 레스토랑, 연회장 등의 부대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주변 여행명소로는 사조마을 스키리조트, 탄금대공원, 중앙탑(국보 제6호) 등이 있으며 충주호관광선(043-851-5771)을 타면 충주호반의 설경을 가슴에 담을 수 있다.

▶**문경온천**

경북 문경시의 문경온천단지는 충북 괴산군 연풍면에서 이화령 터널을 통과, 점촌 방면으로 내려가다 문경읍에 접어들어 왼쪽편에 자리한다. 문경종합온천(054-571-2002)은 각기 1,200여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남녀 대욕실 외에 노천탕, 맥반석찜질방, 증기사우나, 황토사우나, 한식당과 양식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노천탕에서는 설새 없이 폭포수가 흘러내려 청량감을 더해준다. 증기사우나는 욕실을 밀폐하여 40~50℃의 온천증기를 가득 채운 곳으로 비만예방, 피로회복, 신경통 등에 좋다. 주변 명소로는 문경새재, 석탄박물관, 하늘재, 대승사, 김룡사 등. 숙박시설은 문경관광호텔(054-571-8001), 예인과 샘터 펜션(문경읍, 054-571-1961) 등이 있다.

▶**원암온천**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 위치한 원암온천지구는 설악권 온천지구중 최근에 개발된 곳으로 온천수 용출량이 풍부하고 대형콘도 단지내에 있어 여행객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다. 원암온천지구에는 일성콘도(033-636-0013), 대명콘도(033-635-8311), 현대콘도(033-635-9300) 등이 사우나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숙박을 겸하여 온천을 즐길 수 있어 편하다. 특히 일성콘도는 야외 노천탕과 실내수영장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객실까지 온천수가 공급된다.

▶**일동제일유황온천, 일동사이판**

경기도 포천은 수도권에서는 물론 전국에서도 드물게 스키, 온천, 카페 등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고루 갖춘 곳이다. 특히 포천군 일동면에는 유황온천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이중 일동제일유황온천(031-536-6000)은 낙차 8m의 폭포탕, 노천탕, 온천 수영장 등이 인기이고, 일동사이판(031-536-2000) 역시 다채로운 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옥천중실과 노천탕이 명물로 꼽힌다. 특히 일동사이판은 주위 경관이 수려하여 드라이브 코스로도 각광받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이곳은 호텔을 방불케할 만큼 고급스럽기로도 유명하다.

▶**화개온천리조트**

경남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에 자리한 화개온천리조트(055-884-8300)는 비교적 최근에 지어져 시설이 깨끗하고 사우나, 찜질방, 노천탕 등 다채로운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모든 탕과 사우나를 옥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며, 온천수에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온천수 효능면에서도 탁월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스파밸리**

대구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에 위치한 스파밸리(053-608-5000)는 대구 유일의 스파물놀이 테마파크이다. 특히 이곳은 온천욕과 노천탕에서 산소욕을 동시에 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수안보 온천지 주변전경. 요즘 전국의 온천장들은 인근 다양한 위락시설로 최근 새로운 가족단위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일동사이판의 노천탕 전경



▶온천을 즐기는 옥천객의 모습